

## 제34회 국가생산성대상 종합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지난 3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 '2010년 제34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우리 회사가 겹경사를 맞이했다.

먼저 중소기업 종합대상부문에서 최고의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1997년 한마음 운동, 2003년 LIFT 21운동, 2007년 경영혁신운동 등 지속적인 생산성향상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탁월한 경영성과 달성 및 생산성 경영시스템 수준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표이사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표창과 함께 대통령표창 수치(리본에 대통령표창문구가 새겨진 깃피)를 회사기에 전수받았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이하는 국가생산성 대상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경영의 과학화, 시스템화를 통한 체계적인 기업경영과 혁신활동을 통하여 모범적인 생산성향상을 이룩한 기업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정부시상제 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는 국가생산성 챔

피언 경진대회의 결과 “장려상”을 수상의 영예 또한 안았다. 지난 7월에 우리 회사는 “선보현장혁신 우수사례”라는 주제로 이경식 생산팀장이 참가하여 전국 12개의 기업과 프레젠테이션 경진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하게 되었다.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는 생산성 향상 추진 내용 및 활동성도가 우수한 기업의 혁신활동 추진 팀에 대하여 경진대회를 통해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로부터 “생산성 향상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은 산업 발전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2007년부터 활동 중인 경영혁신운동에 대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경제5단체장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회사에서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15명의 임직원 및

가족이 전체 선보가족을 대신 참석하여 수상을 하였다.



### 신입사원

우리 회사는 급변하는 조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사의 응대에 신속 정확히 대처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 및 설계부 인원을 충원 하였다. 이에 각 입사자들의 각오를 들어 보았다.

- ♥ 임훈균 : 선보에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고가 되겠습니다.
- ♥ 박현수 : 설계부의 인원이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 강동훈 : 첫 출근 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홍만기 : 비록 경력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지만 '신입'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 홍순환 : 제 몫에 충실한 것은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 활동 해 훌륭한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김기훈 : 선보와 제 자신이 서로 상생되어 발전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 ♥ 박영목 : 보다 신제품 개발부서에 큰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저 각오 한 마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신입사원들이 이 한 마디를 가슴 속 한 권에 초심으로 간직하고 앞으로의 긴 회사생활을 꿋꿋하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의료기기 구매

고혈압과 비만 등으로 인한 고지혈증은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만병의 근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자신의 건강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체지방 측정기와 혈압계가 각 공장에 설치되었다.

이를 이용한 한 직원은 “평소 업무에 지나치게 치중해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다. 이러한 사소한 배려를 해주는 회사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회사 측에서는 다양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 사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리 회사는 사내 생산성 향상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 성과 확산을 위하여 지난 9월 6일 상임고문 및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공법혁신, 설계혁신, 업무혁신, 원가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개 팀이 응모하였으며, 이 중 엄격한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경쟁에서는 "스트레이너 JIS 필터 및 노즐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다대3공장(리더:신성인 과장)이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 팀에는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었다.

이날 심사위원장(상임고문)은 심사평을 통해 발표자들을 격려하며 "임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대회였다"면서 "과제개선활동은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과정이며, 혁신이나 개선활동이 전문가들의 포맷이나 단순 습관적이 아닌 좀 더 논리(logic)에 맞게 전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진대회 결과

- ◆대상: 다대3공장 (리더:신성인 과장)
- ◆최우수상: 다대2공장 생산관리팀 (리더:임영삼 부장)
- ◆우수상: 품질경영부 (리더:최경호 차장)
- ◆장려상: 영도공장 의장관리팀 (리더:표종원 과장)
- ◆장려상: 목포공장 생산관리팀 (리더:김덕현 과장)



Inside SUNBO 회사 소식

## 2010 국가 생산성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주관해 국가에서 인증하는 국가생산 경진대회에서 우리 회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경식 팀장을 필두로 한, 현장혁신(경영혁신부서)에 대한 평가에 의한 성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화려한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이룩한 결과로 그 의미가 더욱 빛났다.

무엇보다도 사내자격증 제도 완성

의 임무를 다한 것과 현장 내 여러 부분에 관한 개선 제안을 완성해낸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이경식 팀장은 "사내 자격증 제도 등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기 전에 확신이 없어 걱정했던 때가 떠올랐다. 검증된 바 없이 현장에서 느끼고 겪은 것을 반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른 것 같다"고 소박한 소감을 전했다.

사실 이경식 팀장은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된 케이스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익숙해서 처음에 사무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다.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점에 만족스럽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지난여름 서울에서 발표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값진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수상에 이어 이달에는 노동부 장관이 수여하는 우수기능인상에도 내정되어 있어 그의 이후 행보가 주목된다.

## 무엇이 몰입과 헌신을 이끌어 내는가?

훌륭한 성과를 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친 애니메이터가 출근길에 아기를 유아원에 맡기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젖먹이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애니메이터는 낮에 아내로부터 아기를 잘 맡겼느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아기를 차에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다행히 아기도 무사했지만, 이 일은 그 회사 직원들이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지표였습니다.

위 이야기는 토이스토리, 니모를 찾아서 등으로 유명한 '픽사 이야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의 열정과 몰입, 헌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경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많은 리더들에게 잔업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하는 시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 보다 더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는 픽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부러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몰입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가슴을 울려주게 하는 비전', '직원에 대한 존중', '흥미롭고 도전할 만한 과제', '칭찬과 격려, 그 외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조영탁 dream -

Life 최홍렬 상무의 이달의 책

##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대 교수가 말하는 오늘날의 '정의'

하버드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의 명강의'로 불리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 수업을 책 한권에 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칸트에 이르기까지, 과거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정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딜레마들에 대한 날카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장애를 가진 학생 퀘리 스마트가 응원단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멋진 동작을 선보여야 할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년간 이 수업을 진행한 저자의 깊은 통찰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는다.

당신은 전자 기관사이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

해보자. 저 앞에 인부 다섯 명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속도로 다섯 명의 인부를 들이받으면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에(이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자.) 필사적인 심정이 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 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 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다섯 사람이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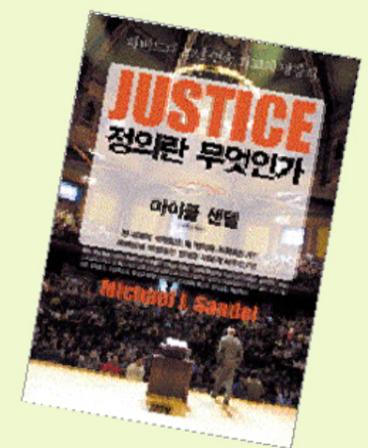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둘러!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다섯이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보인다.

이제 다른 전자 이야기를 해보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

에서 있는 구경꾼이다.(이번에는 비상 철로가 없다.) 저 아래 철로로 전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다섯 명이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차가 인부 다섯 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 무력감을 느끼다가 문득 당신 옆에 덩치가 산만 한 남자가 서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서 전차가 들어오는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죽겠지만 인부 다섯 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당신이 직접 철로로 몸을 던질 생각도 했지만, 전차를 멈추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덩치 큰 남자를 철로로 피는 행위가 옳은 일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피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



위는 비록 죄 없는 다섯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찍한 짓 같다. 그러나 여기서 애매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한 사람을 희생해 다섯 사람을 구하는 첫 번째 예에서는 옳은 것 같았던 원칙이 왜 두 번째 예에서는 잘못된 원칙으로 보일까?

Inside SUNBO 회사 소식

## 서부 교육청 주최 “희망의 사다리” 직원 100여명 참여



우리 회사 임직원 100여 명은 서부 교육청이 주최하는 “희망의 사다리” 행사를 통해 매달 70여 만원의 성금을 모금 하는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 하고 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장영화)이 주최 하는 “희망의 사다리” 운동은 사하구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관내 저

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교육·복지·문화·건강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운동이다.

이번 운동을 위하여 서부교육청 관계자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의 사다리운동’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금식 대표이사의 적극적

인 홍보와 독려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우연히 대rob에서 얼마 안떨어진 골목 안에 공동화장실을 쓰는 단칸방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직원들과 함께 얼마 안 되는 액수나마 후원하고 싶어 이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 한편 이 운동에 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운동의 후원계좌가 개설된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293-2688), 구평종합사회복지관(263-3045), 다대사회복지관(264-5420),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264-9033), 두송종합사회복지관(265-9471)으로 문의하면 된다.

Life 휴가사진 공모전 수상 결과

## “여름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 대상 : “괴롭다 괴로워” (한태영 과장)



★ 은상 : “민소희 놀이” (이기환 대리)



★ 은상 : “할아버지와 손자의 물 장난” (박상계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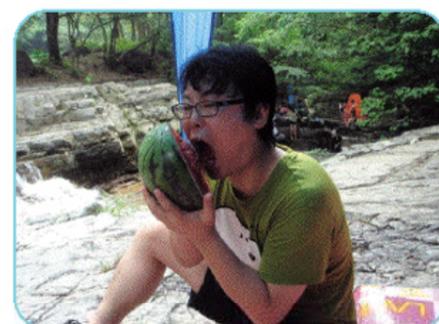
사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과 좋은 작품으로 작품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의 차이로 대상 1점과 은상 2점 그리고 가작 5점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대상 20만원 상당의 상품, 은상 10만원 상당의 상품 그리고 가작은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참가자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 동호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상품권을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출품 바랍니다.



★ 가작 : “뜨아아~” (성창훈)



★ 가작 : “나의천사” (신승훈)



★ 가작 : “장유계곡” (문해기)



★ 가작 : “씻~” (장형구)



★ 동호회 출품 선정작 : 해변 (공성문 이사)



★ 가작 : “조금큰화분” (문형호)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서경플랜트

**한동근 반장**

## 그가 꿈꾸는 유쾌한 직장에 대한 '정의'

군 제대 3주 만에 우연한 기회로 선보에 입사하게 된 한동근반장.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의 어린나이에 일을 시작한 그가 올해로 어느덧 6년차 사원이 되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유니텍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찌면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 그는 "사실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때 일을 가르쳐주신 분들의 영향으로 쫓지 않은 시간 동안 선보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현재 배관조립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든 점은 없냐는 질문에 "동료들의 나이가 비슷해 비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는 편이라 특별히 힘든 점은 없다"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는다.

자신이 신입 때 배웠던 방식 그대로를 후배 직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후배 할 것 없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묻는 '쌍방향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동료로부터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고, 젊은 패기를 가진 동료에게는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는 방식, 바로 요즘 이 시대에서 강조되는 올바른 방향의 의사소통방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평소에 일할까. 이번에도 그는 화통한 답변을 내놓는다. '흥미

미 충만한 직장, 일을 즐길 수 있는 직장'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를 보니 평소의 업무방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치는 모습도, 스스로가 만족하는 모습도 모두 재밌고 유쾌한 직장을 만들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친다.

일을 못한다는 말보다 항상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그의 말에서 유쾌함 뒤의 진지함을 사뭇 느낄 수 있었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영도공장

**양건식 반장**

## 1년 365일, 흔들림 없는 끈기함이 훌륭한 '일꾼'의 비결

선정된 분들 보면서 부러우면서도 그 분들에 비하면 제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 왔던지라 당황스러움이 앞서네요.

어느 부분에서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조금 기쁘기도 하네요.

**Q** 평소 어떤 업무를 맡았으며, 근무 시 자신만의 신념이 있다면?

저는 회사 내 전기 용접기 관리 및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서로 화합해서 일하는 그룹 성격의 일이 아닌, 주로 혼자 일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혼자 일을 하다보니 일을 미룰 때 등 동선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껏 실천해왔어요.

'이곳이 내 일터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다보니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혼자 일하다보니 주변 동료들도 그것을 잘 알고 협조해 줘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 선보가 근무환경이 좋고, 직원복지가 좋은 편이라 이러한 점들 또한 많은 격려가 되고 있는 것 같다.

**Q** 다음 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은 누구인가요?

저와 비슷한 점이 많은, 박현철 공구실장을 추천하고 싶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업무량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편이에요. 다른 그룹 내 팀원들이 끈끈하게 모여서 일하는 것처럼 저와 이분 또한 평소에 서로의 관련된 업무를 상의할 때가 많아요.

감당한 업무량이 많은 만큼 매사에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 분이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Q** 이번호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소감과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인터뷰 대상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당일 아침에 듣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 영업팀 김미란(9/2)
- 1공장 박희순(9/21), 신경섭(9/17), 이은식(9/8), 오남기(9/11)
- 2공장 김문철(9/8), 전철민(9/29)
- 3공장 백준(9/17)
- 순해공업 강신규(9/1)
- 강재현반 김동욱(9/15)
- 우성ENG 강창영(9/13)

**본사 입사기념일**

- 설계팀 윤우희(9/18)
- 설계3팀 오영석(9/18)
- 고객지원 조현상(9/23)
- 1공장 허 현(9/7), 김수환(9/13), 권성현(9/1)
- 3공장 김승우(9/24)

**구평공장 생일**

- 설계5팀 유병창(9/4)
- 설계6팀 민병철(9/28)
- 평창산업 신두환(9/24)
- 서경플랜트 김성철(9/2), 최원규(9/22), 이재문(9/2)
- 보성산업 성정모(9/22), 황 철(9/1), 강화진(9/15)

**구평공장 입사기념일**

- 생산관리 김유미(9/28)
- 자재조달 이동준(9/21)

**영도공장 생일**

- 의장생산관리 신재석(9/14)
- 품질보증 박우근(9/22)

**영도공장 입사기념일**

- 자재운영부 최성호(9/14)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